# 한지 가치 실현 · 옛스런 멋 선사

## 전주한지박물관 재개관… 2025년 1월 24일까지 '한지로 되살아난 왕실의 꽃' 기획전 개최

전주한지박물관이 코로나19로 휴관한 이후 긴 휴식을 마치고 20일 다시 문을 열고 전주시민에게 한지의 옛스런 멋을 선사한다.

전주한지박물관이 코로나19로 휴관한 이후 긴 휴식을 마치고 20일 다시 문을 열고 전주시민에게 한지의 옛스런 멋을 선사한다.

전주 한지박물관은 1997년 10월 21일 국내 최초 종이박물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7년 전주한지박물관으로 관명을 바꾸고 한지전문 문화기관으로 관람객 130만 명을 돌파하며 종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전라북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전주한지박물관의 주요 시설로는 상설전시관(한지역사관, 한지미래관) 2곳과 기획전시실, 한지재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지의 과거를 만날 수 있는 한지역사관에는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기록 매체들과 한지의 역사, 제조과정, 다양한 한지의 종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한지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전시물로 만나 볼 수 있는 한지미래관과 체험형 박물관의 선두주자인 만큼 한지체험의 원조격인 한지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테마전시가 열리는 기획전시실은 비단 한지 뿐만 아니라 종이와 관계되는 여러 아이템을 기획,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종이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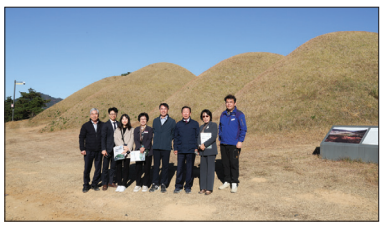
이번 개관에 전시되는 이번 기획전은 지화공예가 이미나 작가를 모시고 '한지로 되살아난 왕실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1월 24일까지 전시된다. 조선시대 궁중의 독특한 꽃 장식 문화인 '궁중상화'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이미나 작가는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인 디자인과 색감으로 해석해 정교한 한지꽃 작품들을 선보인다.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서 중요한 문화적 상징임을 알 수 있는 한지 문화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주한지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전통한지 문화와 역사를 담은 국내에서 유일한 한지전문 박물관으로,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어 온 한지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한지박물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문의는 전화(063-210-8103)으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조근제 함안군수, 장수 가야유적지 방문

## 가야협의회 의장으로 아라가야 복원 노력



장수군은 경상남도 함안군수 조근제가 18일 장수지역에 자리한 가야유적지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조근제 군수는 5개 광역시도 24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가야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고대사회 6가야로 잘 알려진 아라가야를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005년 가야협의회 발족 때부터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장수에는 국가사적인 동촌리고분군을 비롯해 삼봉리고분군, 삼고리고분군 등 45개소에 걸쳐 240기의 고총고분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근제 군수는 가야문화권 발전을 위해 장수군이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고, 최훈식 군수는 화답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가야협의회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장수군은 고대사회의 전쟁터이자 각축장으로 가야를 비롯해 백제와 신라, 마한에 후백제까지 역사문화권 5관왕에 달하는 흥미로운 지역이자 '역사의 맛집'이라 설명했다.

이후 아라가야의 수장인 조 군수는 지난 2019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동촌리고분군'을 시작으로 장수군 유일의 보물인 '장수향교 대성전'과 장계면에 자리한 '삼봉리고분군'을 둘러보았고, 장수역사전시관 관람을 끝으로 장수군 방문일정을 마쳤다.

조 군수는 "동촌리고분군이 가야고분 세계유산 등재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특히 아쉽다"며 "향후 확장 등재를 위해 장수군과 함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순창군, 제14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개막

순창군 옥천골 미술관에서 제14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막했다.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는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호국미술대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미술 공모전이다.

개막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의장, 김남주 103여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미술대전에는 회화, 서예, 조소, 문인화·캘리그래피, 사진, 디자인 등 6개 분야에서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장병 작품 460점과 일반인 작품 567점 등 총 1,027점이 출품됐다.

대상의 영예는 김형우 작가의 조소작품 '승리'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호국과 안보라는 주제에 충실하면서도 형태감과 공간감 등 조각작품의 특성을 잘 살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부문별 최우수상은 △회화 부문 곽병주 병장의 '매일 나는 새긴다', △캘리그래피 부문 성두현 작가의 '조국의 이름으로', △서예 부문 김홍락 작가의 '안중근 의사 유묵'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탄소와 예술; 번안된 매체' 전시

## 전주문화재단, '탄소예술기획전' 2025년 1월 5일까지 개최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우범기)은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47일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2024 탄소예술기획전 탄소와 예술; 번안된 매체'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4회차를 맞은 '탄소예술기획전'은 탄소예술 장르개척과 탄소문화산업으로의 가능성 모색을 토대로 2021년부터 총 46명의 탄소예술 작가를 발굴, 지원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탄소예술 작가와 약 500여 점의 탄소예술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대외협력 및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약 30여 점의 탄소예술 제품을 제작, 탄소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주제는 '탄소와 예술; 번안된 매체'로 기존의 예술 매체와는 차별화된 물성과 개념적 가능성을 내포하는 탄소섬유를 통해 예술가가 체득한 창조적 표현을 통해 물질과 비물질, 기술과 예술, 환경적 책임이 얽혀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교차점을 탐구한다.

개막식은 오는 22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4회차를 맞아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탄소예술의 장르적 확산이 기대되는 전시"라며 "지역에서 파생된 새로운 예술장르인 탄소예술기획전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핵심사업을 통해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사업 확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어린이&화가 행복한 그림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어린이&화가 행복한 그림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내 15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 400여 점과 작가작품 60점 등 총 46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한국미술재단과의 업무협약으로 15개 초등학교에 작은 미술관을 조성, 학교당 18점씩 총 270점의 작가작품을 기증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어린이&화가 행복한 그림전은 도내 문화소외지역 초등학생들에게도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선진사례 벤치마킹 대상 '주목'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전당에 따르면 올해 청양군, 괴산군,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전남교육청, 국립 세종수목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한식, 한지, 한복, 공예, 전통놀이 등 전당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콘텐츠의 특화된 운영 노하우 등을 자문받았다.

이에 앞서 청양군 직원 10여 명이 전당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 지원 사업과 K-한지마을 레지던시 운영 등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했다.

특히 전당이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과 홍보 마케팅, 시설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괴산군, 국립세종수목원, 한지박물관이 방문했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와 전남교육청도 전당을 찾아 음식문화 체험과 식문화 전시 등의 자문을 구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